

[New York]
입력 2024.07.18 21:15

“올해 세 차례 금리인하 전망”

코참,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
“물가 하락도 이어질 것”



미한국상공회의소(코참·회장 박호찬)는 17일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마케팅서치 및 전략팀 책임자인 대니얼 스켈리(사진) 매니징디렉터를 초청해 ‘미국 및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스켈리 디렉터는 이날 세미나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9월을 기점으로 총 세 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은 현재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소프트랜딩할 가능성은 당초 80%에서 50%로 줄었지만, 여전히 소프트랜딩에 무게를 뒀다. 미국 경제성장률도 올해 2.3%, 내년 2.1%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스켈리 디렉터는 향후 6개월과 12개월 사이에 금리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압박을 받았던 무주택자와 신용 채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11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기술과 금융 등 각종 부문에서의 규제 철폐로 기업들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 인하와 관세부과, 이민 제한 등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금리인하

#금융시장

#차례 금리인하

#물가 하락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